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중부대로 93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031)249-8061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은 1967년 개원 당시 가난하고 병든 이들이 많았던 수원시에 성빈센트 드 불 자비의 수녀회에서 설립한 수원시 최초의 대학병원입니다. 당시 지동은 수원 중심가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으로, 농민과 6·25전쟁으로 고향을 떠난 피난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본원은 개원과 동시에 병원 지하에 20병상 규모의 자선진료소를 마련하였고, 초기에는 퇴원하는 환자들에게 물품을 챙겨주고 빈민촌을 돌아다니며 구호 물품을 나누어주는 등 가톨릭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며 발전하여 왔습니다.

본원은 가톨릭 정신과 빈센트 성인의 영성을

바탕으로 말기 암 환자에게 신체적·정신적·사회적·영적 돌봄과 사별 가족을 위한 지원까지 환자가 고통 없고 품위 있게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총체적인 돌봄(holistic care)을 제공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근본정신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1994년 원목팀 중심으로 암환자들을 방문하기 시작하였고, 일찍부터 시작한 호스피스 활동을 계기로 2001년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월 1일 16병상으로 리모델링 및 증설하여 1인실 2개, 3인실 2개, 4인실 2개, 가족실, 임종실, 실내 정원, 요법실로 오픈하여 환자 및 가족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사



4명, 간호사 16명, 전담 사회복지사 2명, 원목 담당 수녀 1명, 자원봉사자 16명이 팀을 이루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국이지만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에서는 환자 및 보호자들과 미술·원예요법, 버킷리스트, 이벤트 등 호스피스팀원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임종환자들을 위해 매일 진행했던 사별가족 미사와 사별가족 모임(별모임)은 잠시 중단되었지만, 그 빈자리를 'Cheer up' kit(손소독제, 마스크, 사별가족 다이어리 등)를 제작하여 조금이나마 사별가족들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으로의 복귀에 도움을 되길 바라며 kit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부터 시작된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현재 모두 본사업으로 전환



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3개 사업 통해 유기적으로 호스피스 서비스를 연계하고 삶의 질에 목적을 둔 호스피스완화의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은 2001년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을 오픈하여 작년 2021년이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이 개설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지난 20년간 다학제 팀으로 구성되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원목사, 자원봉사자, 요법치료사 등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가로 구성돼 총체적인 돌봄으로 환자와 그 가족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은 환우분들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곳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루하루 행복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